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MIDNIGHT BLUE
가제 : 미드나잇 블루
저자 : Simone van der Vlugt
출판사: HarperCollins Publishers Ltd
발행일: 2017년 5월 4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여성/예술/역사



- *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이스라엘 판권 계약
- *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오피 진행 중
- * 네덜란드(원작)에서 작년 2월 출간 후 65,000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 * “예술과 경제력이 절정에 달한 시기의 네덜란드를 그린 매혹적인 자화상. 역사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위대한 예술가, 용감한 탐험가, 재능 넘치는 상인들로 가득한 이 소설은 멋진 선택이 될 것” - 「퍼블리셔스 위클리」 / 「진주 귀고리 소녀」와 같은 장르

흰색 바탕에 진하고 오묘한 빛깔을 띤 푸른색으로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지금도 널리 사랑 받고 있다. 접시며 주전자, 크고 작은 컵까지 도자기의 형태나 그림은 다양하지만, 흰색 외에는 독특한 청색만 사용됐다는 점이 이 네덜란드 도자기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델프트 블루’라는 정식 명칭까지 붙여진 이 유명한 청색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 네덜란드에서 스릴러와 역사 소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는 17세기를 배경으로, 델프트 블루를 세상에 탄생시킨 한 여성의 삶을 들려준다. 가상의 인물들과 실제 벌어진 사건들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생생함을 더한 이 소설은 좁디 좁은 시골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고 그대로 평생 짓눌려 사는 대신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주인공 카트린의 여정을 쫓아간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듯이, 힘겹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카트린의 길에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우며 스릴러적인 요소로 흥미를 더한다.

한 순간의 실수로 나이가 두 배나 많은 남자와 밤을 보내고 덜컥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카트린은 술주정뱅이에 여자를 마구잡이로 때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때는 1650년대, 여자가 남자에게 반항을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남녀를 불문하고 한 번 태어난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아이는 유산됐지

만 악마나 다름 없는 남편 고버트의 손아귀에 붙들린 채로 살던 그녀는 늘 그럴듯 만취한 상태에서 난리를 치던 남편이 덜컥 숨을 거두자,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깨달았다. 남편이 운영하던 농장을 모두 팔아 치우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속덕속덕 뒷당화를 일삼는 사람들만 가득한 마을을 아예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스물다섯, 젊은 미망인 카트린은 아무 미련도 없이 드 레이프를 떠나 멀리 떨어진 도시 알크마르로 향한다. 그곳에 사는 친구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고마운 제안을 해왔으니 거절한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새 출발은 생각만큼 순탄치 않았다. 알크마르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일자리는 물거품이 된 것이다. 바로 그 때 카트린은 마티아스라는 사람과 우연히 알게 된다. 그녀의 처지를 알게 된 마티아스는 암스테르담에 형과 형수가 살고 있는데, 집안일을 돌봐 줄 사람을 찾고 있다며 함께 가자고 제의한다. 이미 태어난 마을을 떠나 여행을 시작한 카트린은 곧바로 수락하고 그를 따라 나선다.

마티아스의 형 아드리안과 아내 브리짓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마침내 카트린은 안정적인 새 삶을 시작하고, 마침내 웃음을 되찾는다. 특히 줄곧 그림을 그리는 브리짓 옆에서 조수처럼 일하면서 예술적인 재능을 발견한 건 뜻밖의 쾌거였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절도 잠시, 고버트와 농장에서 살 때 가끔 일을 도와주던 제이콥이 갑자기 암스테르담에 나타난다. 카트린이 고향을 떠나면서 함께 묻고 온 비밀, 세상에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 뒤를 쫓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카트린은 다시 도망 길에 올라야 하는 신세가 되지만, 이번에도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 아드리안의 배려로 델프트라는 도시에서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는 에버트의 일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카트린은 다시 먼 여행길에 나선다.

중국 도자기의 엄청난 성공으로 도저히 희망 없는 쇠퇴기에 들어선 네덜란드 도자기 산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에버트는 그림에 소질이 엿보이는 카트린에게 워튼 마음대로 시도해보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얻은 카트린의 손에서 '델프트 블루'가 탄생한다.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고 공장의 유일한 여성 직원으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델프트의 화학 공장이 폭발하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고 카트린은 다리를 크게 다친다. 따돌린 줄 알았던 제이콥이 그곳에 또 다시 나타나 카트린의 숨통을 조이는 가운데 에버트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카트린은 또 다시 도망칠 것인지, 사랑과 겨우 찾은 미래를 위해 기약 없이 기다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네덜란드의 황금기라 불리는 1654년을 배경으로 불가능한 벽을 넘어 힘겹지만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열어가는 한 여성의 인생을 로맨스와 스릴러, 역사적 요소를 결합해서 그린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시모네 반 데어 블루크트(Simone van der Vlugt)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소설가로 YA 시리즈로 시작해 스릴러, 역사 소설을 발표했다. 네덜란드에서 큰 인기를 얻은 베스트셀러 『THE REUNION』, 『THE LAST OFFER』, 『SAFE AS HOUSES』, 『AUTUMN SONG』를 비롯해 『JACOBA, DAUGHTER OF HOLLAND』, 『THE EMPTY CITY』, 『RED SNOW IN DECEMBER』 등을 썼다.

제목 : ALLIE AND BEA
가제 : 엘리와 베아
저자 : Catherine Ryan Hyde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5월 23일
분량 : 350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여행



- * 아마존 차트 베스트셀러, 독일 판권 계약
- * 국내 스테디셀러 『트레버』의 작가 신작 / 전 세계 250만 독자를 거느린 작가의 최신작
- * 「POPSUGAR」 선정 올 봄 기대되는 도서(Hot New Spring Books Selection)
- * “우정과 가족, 믿음, 인간을 향한 신뢰를 그린 멋진 소설” - 「라이브러리 저널」

더 이상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없어진 두 사람이 낯선 길 위에서 만난다. 일흔 살이 넘은 할머니와 이제 열다섯 살인 여학생,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전혀 다른 이유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두 사람. 그들은 가장 절박한 이 시기에 우연히 만나 세대를 뛰어넘은 친구가 되고, 이 특별한 우정은 두 사람의 절망에 환한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

베아트리체는 줄곧 트레일러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다. 이동식 주거차량들이 띄엄띄엄 주택가 처럼 서 있는 전용 공원 한 켠의 트레일러였다. 내내 먹고 살기 힘들었다. 남편 허버트는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베이커리 사업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나라에서 주는 몇 푼 안 되는 연금을 아끼고 아껴가면서 살았다. 그래도 함께였기에 부족할지언정 밥을 굶거나, 통장 잔고가 아예 바닥나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다. 허버트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빠듯한 살림 속에서 모아 놓은 3,000 달러가 베아트리체의 손에 남았을 때만 해도 그 돈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졌었다. 그러나 매달 꼬박꼬박 트레일러 임대료와 각종 세금은 나가고, 수입은 없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한 달치 세금을 내면 통장이 거의 바닥날 지경에 이른 어느 날, 그 돈마저 날려버리게 된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문제였다.

국세청 직원이라고 밝힌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2014년에 제대로 안 낸 세금이 있다고 했다. 기억을 더듬던 베아트리체는 그 해가 허버트를 떠나 보내고 혼자서 세금 정산을 했던 첫 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실수가 있었을까? 상대방은 국세청은 5-6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을 색출해낸다는 설명과 함께,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베아트리체의 통장 잔고는 겨우 740 달러였다. 남자는 그녀에게 지금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 지사까지 가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곳도 오늘 내로 도저히 도착할 수가 없는 거리였다! 하는 수 없이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좌 정보를 알려준 베아트리체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사기였음을 깨닫는다. 그는 잔액뿐만 아니라, 어제 입금된 그 달치 연금까지 싹 가져가고 말았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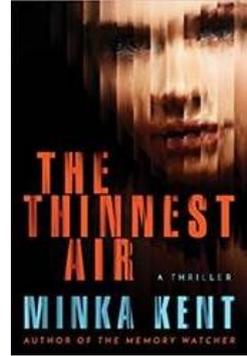
앨리는 집 2층 복도에서 엄마아빠가 수갑을 차고 끌려 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았다. 며칠 전부터 집안에 냉랭한 분위기가 가득해 문제가 생긴 건 짐작을 했었지만, 체포라니. 부모님은 앨리에게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아무 것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양복을 차려 입은 형사들이 현관에 들어와 미란다 원칙을 들려주고, 아무런 저항이나 변명 없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를 보면서 앨리는 이 사건이 자신에게만 갑작스러운 것임을 깨달았다. 뒤이어 도착한 아동 복지국 소속 직원들은 앨리가 지낼 곳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다 요양원에 계시고, 엄마는 외동딸이고, 아빠의 유일한 형제인 큰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앨리가 갈 곳은 딱 한 곳, 청소년 쉼터 밖에 없었다.

번드르르한 저택에서 풍족하게 살다가 하루 아침에 쉼터가 집이 된 앨리는 며칠 후에야 부모님이 세금 탈루 혐의로 체포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구형될 가능성이 크고, 그 동안 시설에서 계속 생활해야 한다는 암담한 소식도 접했다. 문제는 2인 1실로 생활하는 쉼터에서 만남 룸메이트가 그곳 아이들 사이에서 ‘또라이’로 악명 높은 리사라는 점이였다. 위험한 아이니 조심하라는 한 친구의 귀뜸도 소용 없이, 리사는 앨리가 가져온 트렁크를 몰래 훑쳐다가 그 안의 물건을 몽땅 팔아버리며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앨리는 시설 담당 교사에게 문제를 알렸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미친 아이라는 별명답게, 리사는 불법적인 복수를 준비했다. 폭력배인 남자친구를 동원해 앨리를 잡으러 나선 것이다. 야밤에 울려 퍼지는 오토바이 소리에 깜짝 놀란 앨리는 친구 자스민의 도움으로 몰래 쉼터에서 달아난다. 그러나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던 자스민은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남자의 집으로 앨리를 데려가고, 뒤늦게 그 집의 실체를 알게 된 앨버타는 무작정 달아난다. 다시 쉼터에 갈 수도 없고, 그 집에 있을 수도 없었던 앨리는 히치하이킹을 시도하고, 캘리포니아를 향해 달리던 베아트릭체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온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몰라 주춤하던 두 사람은, 함께 여행하며 낯선 사람으로부터 우정과 사랑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가족을 만들 용기까지 내게 된다. 그리고 함께, 마침내 불완전한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된다.

<저자 소개>

캐서린 라이드 하이드(Catherine Ryan Hyde)는 워너브라더스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의 원작 소설 『트레버(Pay It Forward)』를 비롯해 『Becoming Chloe』, 『Jumpstart the World』, 서른 권이 넘는 장편과 단편 소설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다. 람다 문학상(Lambda Literary Awards), 레인보우 상(Rainbow Awards), 오 헨리 상(O. Henry Award)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거나 후보로 선정됐다.

제목 : THE THINNEST AIR
가제 : 실종
저자 : Minka Kent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8년 7월 1일
분량 : 273 페이지
장르 : 심리스릴러소설



- *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 처럼, 자동차에서 홀연히 사라진 여자, 그녀의 행방은?
- * 2017년 베스트셀러 데뷔작 『The Memory Watcher』을 쓴 작가의 신작 스릴러
- *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놓을 수가 없었던 스마트하고, 반전이 가득하면서 독창적이고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스릴러.” -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작가 제니퍼 제인스, 『The Memory Watcher』 서평

아이들을 데리러 차를 몰고 나간 여성이 마트 주차장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 운전석 쪽 차문은 열려 있고, 차 키도 그대로 걸려 있었다. 조수석에 놓인 지갑과 가방에 누가 손댄 흔적도 없고 차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누가 몸싸움을 하거나 반항한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사라진 여성의 이름은 메레디스. 부모님 대신 메레디스를 키우고 돌봐온 여덟 살 터울의 언니, 그리어는 메레디스의 실종 소식을 듣고 바로 다음 날 뉴욕에서 유타로 향한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아름다웠던 동생이 아주 이상한 결혼을 할 때부터 어쩌면 이런 불길한 사고는 예정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메레디스는 실종되기 3년 전, 앤드류 프라이스라는 남자와 결혼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스물두살의 아름다운 여성이 택한 배우자는 나이가 두 배는 더 많은 사업가였다. 그것도 만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후다닥 이루어진 결혼이었다. 그리어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만류했지만, 소용 없었다. 부모님의 따뜻한 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아서 나이 많은 남자 특유의 여유로움과 자상함을 이성간의 애정으로 착각한 것이라는 평가나, 아주 가난하진 않지만 썩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시달리다 앤드류처럼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다 그 돈을 펄펄 쓸 줄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 돈에 눈이 멀었다는 평가는 메레디스에게 일말의 영향도 주지 않았다. 적어도 결혼할 당시에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앤드류는 메레디스가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찾아와 처음 만났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차려 입은 그는 비슷한 차림의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고, 메레디스가 주문을 받으러 그쪽으로 갔다. 주문을 마치고 메뉴판을 다시 건네던 그는 슬쩍 메레디스의 손을 잡았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르게 지나간 순간이었지만 메레디스는 분명히 느꼈고 별로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찰나의 순간에 온 정신을 자신에게 쏟는 그 남자가 은근히 마음에 들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고, 감정은 제어할 수 없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메레디스를 매료시킨 건 앤드류가 주는 안정감이었다. 돈이나 나이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아닌, 함께 있을 때 단 한 순간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눈길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오롯이 메레디스에게만

집중하면서도 매너를 지키고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든든함이 좋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메레디스는 진부한 사랑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생각을 스스로 떠올리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메레디스는 앤드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가 하루 아침에 재산을 모두 잃는다 해도 곁에 있겠다고 말할 수 있었다. 언니 그리어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앤드류가 결혼생활이 두 번이나 실패한 데다 둘째 부인과는 아이를 두 명이나 낳고도 어린 여자 공무니나 쫓아다니는 저속한 재벌로 보일지 몰라도 메레디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정감을 주는 사람, 사랑 받고 있음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리어는 결혼할 때부터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앤드류를 실종 사건 이후 처음으로 오랫동안 지켜볼 기회를 얻었다. 그 정도 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메레디스를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리어는 실종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접한다. 메레디스가 몇 달 전부터 스토키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어가 몰랐던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메레디스는 결혼 후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임신을 했었고, 아이는 유산됐지만 임신 사실을 알아챈 앤드류가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스토키 사건부터 실종 사건까지 전담하는 형사, 로난은 이런 이야기를 그리어에게 전하면서 앤드류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 불행한 결혼생활을 견디다 못한 메레디스가 남편을 피해 어딘가로 숨어버린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로난의 추측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처음과 다른 생각이 그리어를 사로잡는다. 지역 방송은 물론 미 전역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도 메레디스의 실종 뉴스가 나가도록 손쓰고,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앤드류의 모습은 분명 연기가 아니었다. 만약 앤드류가 그 동안 가진 편견과 달리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리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난다. 메레디스에 관해서라면 속속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리어도 몰랐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준 사람, 로난 형사는 오랫동안 메레디스와 불륜 관계였던 것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따라다닌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던 메레디스는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처음 로난과 만났다. 앤드류와 결혼한 뒤, 아침에 일어나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걱정거리도 전혀 없었지만 메레디스는 행복하지 않았다. 심심하고, 지루하고, 뭐라도 하고 싶었다. 앤드류가 출근하면 매일 이런저런 운동을 하고 강좌를 들으러 다니던 그녀는 호신술 수업도 신청하고, 그곳에서 다시 로난과 마주친다. 결혼 직후만 해도 세상에서 앤드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었지만, 그 뜨거웠던 애정은 가라앉은 시기였고, 로난에게 자꾸 끌리는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다. 과연 로난은 메레디스의 실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어는 파헤칠수록 믿기 힘든 거짓과 위선, 집착과 마주하고, 동생의 행방은 계속해서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저자 소개>

민카 켄트(Minka Kent)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공부했다. 데뷔작 『The Memory Watcher』는 2017년 3월과 9월에 ‘아마존 킨들 스토어 톱 100’에 진입하고 2017년 11월 아마존 최다판매 차트에도 포함됐다. 그 밖에도 『The Perfect Roommate』를 썼다.

제목 : THE HOUSE OF BROKEN ANGELS

가제 : 망가진 천사들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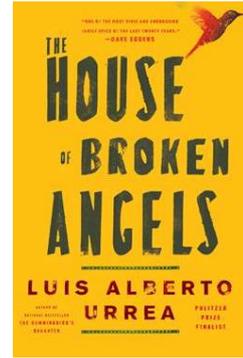
저자 : Luis Alberto Urrea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8년 3월 6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가정



- * 스페인, 터키 판권 계약 / 한국 가정처럼 분노와 설움이 있는 멕시코계 미국 가정을 다룬 책
- * “방대하고, 떠들썩하고, 신나면서 슬프고, 웃기고, 유쾌하게 세속적인 이야기.” - 「뉴욕타임스 북 리뷰」
- * “작가는 소소한 순간들을 심층적으로 파고들어가 삶에 관한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랑이 답이다. 무엇도 사랑을 멈추게 할 순 없다. 국경도, 죽음도 소용없다.’ - BBC

마치 『대부』의 꼴리오네 집안의 대표가 ‘갓 파더’ 돈 꼴리오네이듯이, 드 라 크루즈 집안의 대표는 일명 ‘빅 엔젤’ 미구엘 엔젤 드 라 크루즈이다. 그는 미국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는 수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있는 70대 가장이며, 그의 생일은 매년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올해, 암이라는 고약한 병이 미구엘을 덮쳤고, 세상과 작별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그는 마지막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 몸은 함께 있지 못해도 사랑만 있다면 끈끈한 결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다. 그런데 생일을 일주일도 앞두지 않았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다. 100세 노인인 미구엘의 모친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이미 한참 전에 미구엘의 생일파티를 위해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린 뒤라 다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때 샌디에이고로 올 준비를 마쳤을 텐데, 장례식 때문에 번거로운 여행을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씩 하게 해야 하나? 다들 빠듯한 살림에 차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미구엘은 짜증이 솟구쳤다. “어머니 왜 하필, 지금!” 게다가 늘 그랬듯 아내, 아이들, 여동생도 최종 결정은 미구엘에게만 미뤄둘 뿐 별로 고민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 여유롭고, 게으른 식구들이 제시간에 딱딱 움직이도록 평생을 애써온 미구엘은 마지막까지도 이 역할을 떠안게 됐음을 깨닫고 다소 황당한 결정을 내린다. 바로 어머니의 장례식과 자신의 생일, 두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1박 2일 동안 샌디에이고 집에서 하루는 장례식, 다음 날은 파티를 열기로 한 것이다.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가톨릭 신자였지만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드 라 크루즈 집안 사람 중 절반은 모르몬교도이고 심지어 UFO를 숭배하는 집단에 들어가 ‘아논나키’라는 신이 구원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몇 명이 있다. 복음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무교도 있었다. 조카녀석들 중에 한 명은 진지하게 자신이 바이킹의 후예라고 믿었다. 갑자기 장례식 치를 장소를 찾는 것도 가뜩이나 힘든데, 이 각양각색의 종교를 다 배려

할 수도 없었다. 미구엘이 가족들의 시간과 자신의 건강까지 고려한 묘책이, 이 1박 2일 행사였다.

이름보다 '빅 엔젤'로 더 많이 불리는 미구엘의 생일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 '리틀 엔젤'도 오기로 했다. 엄마가 백인인 다른 배다른 동생이었다. 다들 백인 혼혈인 그와는 거리감이 있었다. 그래도 빅 엔젤은 그를 '우리 막내'라고 부르며 스물여덟 이나 된 다 큰 청년을 꼬맹이처럼 애정을 담아 대하곤 했다. 오랜 세월 '리틀 엔젤'과 다른 가족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일종의 완충 구역이 형성되어 있어, 서로 마음 다칠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다. 리틀 엔젤도 피 반쪽이 섞인 가족들과 아예 남남처럼 지낼 수도 없고, 녀석 좋게 먼저 다가가지도 못 되는 성격이라 이 완충 구간을 오히려 반겼다. 그러나 형의 목숨이 언제 멎을지 모른다면 불편하더라도 만나서 작별인사를 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특별 손님, '리틀 엔젤'까지 모두 모이게 되었다. 감옥에서 갓 나온 말썽쟁이, 대학생, 도박판에서 판돈 척척 거는 큰 손과 천진난만한 아이들,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늙은이들까지 말이다.

소란스러운 식구들이 모여 이미 세상을 떠난 '마마 아메리카'의 죽음을 애도하고 곧 그 뒤를 이을 빅 엔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웃지 못할 사건들과 폭소를 자아내는 순간들, 그리고 수십 년 전, 어쩔 수 없이 미국 땅으로 건너와야만 했던 멕시코인들의 가슴 아픈 역사가 작가 특유의 유려한 문장으로 그려진다. 웃고 울게 하는 그 이야기에는, 작가의 특유의 정곡을 찌르는 통찰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솜씨의 진면목이 담겨 있다.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특징적인 면모와 함께, 작가가 직접 겪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 달 후 형이 세상을 떠난 자전적 경험이 진하게 녹아 있다.

목전까지 죽음이 임박한 빅 엔젤은 매 순간 무너지는 몸과 정신을 느끼고 두려워하면서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가족의 역사, 평범한 사람들과 영웅과 다름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족의 유대를 상기시킨다. 독자로 하여금 빅 엔젤의 마지막 파티를 구경하는 것을 넘어 마치 그 자리에 초대받아 함께 하는 것 같은 기분을 자아내고 소소하지만 너무나 친근한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며 인간애를 이야기하는, 따뜻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루이스 알베르토 우레아(Luis Alberto Urrea)는 논픽션 『The Devil's Highway』로 2005년에 풀리처 상 결승에 오른 베스트셀러 작가다. 소설 『Hummingbird's Daughter』, 『Into the Beautiful North』, 『Queen of America』와 PEN/포크너 상(PEN/Faulkner Award) 결승작으로 선정된 단편 모음집 『The Water Museum』 등을 썼다. 라난 문학 상(Lannan Literary Award), 에드가 상(Edgar Award)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에는 미국 예술문예아카데미가 수여하는 문학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OUR PLANET

가제 :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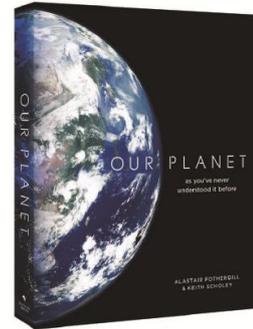
저자 : Alastair Fothergill, Keith Scholey

출판사: Bantam Press

발행일: 2019년 4월

분량 : 약 320페이지 예정(현재 네 장 분량의 원고 초안)

장르 : 과학



- * 내년 봄 넷플릭스에서 4년간 연이어 방영될 초대형 다큐멘터리 8부작과 함께 제작, 발표될 도서 - 시청자 10억 명 예상(BBC 전작 'Planet Earth'의 두 배)
- * 독일, 미국, 레바논 판권 계약 /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관심있게 리뷰 중 / 네덜란드, 스페인, 체코 옥션 진행 중
- * 데이비드 애튼버러 서문, 리처드 도킨스 포함 세계 환경보호 촉구하는 유명인들의 기고 예정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가구는 전부 망가지고, 지붕에는 구멍이 뽕 뚫린 집. 게다가 욕실에는 물이 철철 넘치고 누가 보일러를 깜박하고 안 끄는지 바닥이 절절 끓어서 땀이 나는 곳. 이런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는지 이렇게 엉망이 된 집은 바로 지금 우리 지구의 현실이다. 오랜 세월 인간은 내키는 대로 뭐든 다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처럼 지구 곳곳에서 날뛰면서 귀중한 야생동물과 자연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마저 다 망쳐놓았다. 하지만 인간이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지구는 신비한 회복 능력을 가졌기에, 인간이 지금이라도 성숙한 태도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애쓰면 되살릴 수 있다. 지금은 가능하지만, 더 지체된다면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BBC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연이어 제작해온 두 프로듀서는 총 4년간 사상 최대 제작비를 들여 준비한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자연의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며, 왜 더 이상 이 상황을 남일처럼 외면해서는 안 되는지 알려준다. IMAX 영화로도 제작될 넷플릭스 시리즈와 함께 내년 봄 출간될 이 책은, 인류세가 시작된 약 1970년으로부터 반 세기가 지난 2020년을 맞이하여, 달에서 바라본 파란 수정 같은 지구의 모습이 인류에게 처음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벌어진 자연 파괴의 실태와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보여준다.

책은 TV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지구의 핵심 서식지 여덟 곳을 각 장에서 하나씩 살펴본다. '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강과 지류를 찾아 주변의 산과 숲, 습지, 그리고 바다로 이어지는 모든 경로에서 발휘되는 놀라운 기능과 기후 조절, 홍수 방지 등 인간에

게 그야말로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강의 현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초원과 사막’에서는 지구 전체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초원이 야생동물의 서식지이자 인간이 식량을 만들어내는 근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고, 사막도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숲’에서는 지구 곳곳에 형성된 크고 작은 숲이 인간의 채벌 활동으로 사라져가는 현실을 조명하고, 숲을 되살리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할 구체적인 노력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정글’에서는 연중 내내 비가 오고 햇볕을 가득 공급 받는 특수한 기후 조건 덕분에 지구의 생물학적 다양성이 보존되는 정글이 우리의 식량자원을 지키는 측면에서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육지와 만나는 바다’와 ‘먼 바다’에서는 각각 육지의 자연과 협력하여 서로의 생존을 위해 공생하는 바다의 신기한 기능과 먼 바다 심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구 핵의 열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본다. 마지막 ‘얼어 붙은 세상’에서는 극지방에도 존재하는 독특한 생태계와 이미 시작된 해빙이 이대로 지속될 때 발생하는 끔찍한 사태를 설명한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함께 인간의 무모하고 이기적인 시도로 망가진 자연의 모습을 페이지마다 가득한 사진으로 보여주고, 다양한 통계 자료와 연구 결과를 일러스트로 곳곳에 배치하여 이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다각도로 접할 수 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상기해야 할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 보존의 시급성, 필요성이 알차게 담긴 책이다.

<목차>

머리말

물 - 흐름

초원과 사막 - 공간

숲 - 회복력

정글 - 다양성

육지와 만나는 바다 - 공동체

먼 바다 - 열의 중심

얼어붙은 세상 - 얼음

맺음말

<저자 소개>

알래스테어 포터길(Alastair Fothergill)은 BBC 야생 자연 다큐멘터리 시리즈 <Freezer>, <Planet Earth>, <Frozen Planet>, <The Blue Planet>, <The Hunt>의 프로듀서를 맡았다. 디즈니 영화 네 편에 감독을 맡았으며 저서로는 『The Blue Planet』, 『Planet Earth』 등이 있다.

키이스 스콜리(Keith Scholey)는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동물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알래스테어 포터길과 함께 ‘실버백 필름’을 공동 창립했다. 오랫동안 BBC와 디즈니, 디스커버리 등에서 시리즈 제작에 참여했다.

제목: STARTUP OPPORTUNITIES

가제: 제 사업 아이디어 좀 평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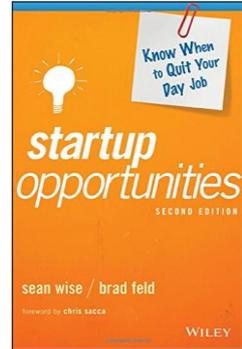
저자: Brad Feld, Sean Wise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7년 5월 30일

분량: 208 페이지

장르: 경영



- * 기발한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덤벼다가 실패하는 무수한 창업자들을 위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조언이 담긴 스타트업 지침서
- * 창업의 성공은 최초의 아이디어를 얼마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당신의 사업 아이디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평가하는 방법!

모든 사업은 신선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이전까지 전혀 없었던 생각일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을 독창적으로 변형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서비스나 제품으로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만 1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 상황이지만, 과연 이들 모두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 현실은 뜨거운 열정으로 문을 연 사업체가 채 5년을 견디지 못하는 일이 태반이고, 10년을 버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초기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로 활동해온 두 저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창업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업의 가장 첫 단계인 ‘아이디어’부터 제대로 들여다 봐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사업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기발하고, 특별하고, 큰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기에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회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기대는 대부분 정반대의 현실로 되 돌아온다.

저자들은 무수한 창업자들과 만나 투자 제안을 듣고 분석하면서 이미 그 단계부터 성공할 사업과 그럴 가망성이 낮은 사업을 구분하는 통찰력을 키웠다. 그리고 이 책에서 창업자가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모든 것의 씨앗이 될 생각을 철저히 평가하고 검증해야 할 필요성과 그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창업의 성공은 최초의 아이디어를 얼마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이것이 무형의 아이디어가 거대한 기회로 탈바꿈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이에 두 저자는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아이디어를 탄탄한 기반에 세워서 키워 나가는 단계와 거기에 뼈와 살을 붙이는 계획 단계, 그리고 초기 실행 단계에서 창업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보를 제시한다. 여기에는 시작하려는 사업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규칙과 기존에 하던 일 혹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도 되는 안전한 타이밍을 찾는 방법, 소비자 발굴 기법을 사업 초기에 적용하여 아이디어를 기회로 키우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창업자가 혼자서 자기 아이디어를 아주 괜찮다고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사업의 파트너가 생기고, 직원이 생기고, 투자자, 자문가, 소비자가 생긴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당연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이디어를 '도둑 맞을까' 두렵다는 이유로 꾀꾀 숨기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저자는 창업 아이디어에도 '산소'가 필요하며, 믿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아이디어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그 산소라고 설명한다.

시간과 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기 전, 사업의 가장 첫 단계에서 성공 여하를 진지하게 따져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유익한 지침서로, 사업가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과 전략, 창업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줄기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1장. 스타트업이란?

2장. 민주적인 스타트업

3장. 기회

4장. 기회 평가 방식

5장. 사람

6장. 고통

7장. 제품

8장. 시장

9장. 계획

10장. 홍보

11장. 자금 모으기

12장. 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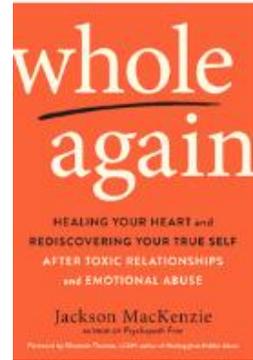
13장. 적당한 때가 오기 전에는 일을 관두지 말 것

<저자 소개>

브레드 펠드(Brad Feld)는 초기 투자자 겸 기업가로 20년 넘게 활동해 왔다. 파운드리 그룹(Foundry Group), 모비우스 벤처 캐피탈(Mobius Venture Capital) 등을 공동 설립했다.

션 와이스(Sean Wise)는 스타트업과 벤처 자금 전문가로, 강연과 저술, 교육 활동을 지속해 왔다. 현재 'Ryerson Futures'의 공동 대표이며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에서 방영되는 <The Naked Entrepreneur>의 진행을 맡고 있다.

제목 : WHOLE AGAIN
가제 : 관계가 남긴 흉터를 지우는 법
저자 : Jackson MacKenzie
출판사: TarcherPerigee
발행일: 2019년 1월 8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건강/정신건강



*** 독약처럼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비정상적인 관계에 관한 『연인인가 사이코패스인가』의 작가가 제시하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방법**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독약을 삼킨 것처럼 한 사람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해로운 사람도 있다.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피하기도 힘든 이런 위험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신적 ‘학대’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알게 모르게 큰 상처를 남긴다. 미국에서만 11만 5,000부 이상 판매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8개 언어로 번역된 첫 번째 저서 『연인인가 사이코패스인가 (PSYCHOPATH FREE)』에서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구분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여 큰 화제를 모은 저자는, 깊은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 원래의 자신으로 건강하게 되돌아가는 방법이 이 두 번째 책에서 제시한다.

해로운 관계는 다행히 그 실체를 깨닫고 모두 정리한 이후에도 극심한 상처를 남긴다. 저자가 ‘생존자’라 일컫는 이 피해자들은 사고와 판단이 둔해지거나 정신이 멍해지고 우울증, 극심한 기분 변화, 고립감, 완벽주의, 다 지나간 일을 무수히 곱씹고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거나 물질 남용에 빠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아주 오랜 시간 심각한 고통에 시달린다. 저자는 직접 경험한 그 지옥 같은 시간들과 웹사이트를 통해 이와 같은 피해자들을 매달 수백 명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는 이 괴로운 증상 혹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이 모두 하나로 움직이는 ‘완전성’은 세상에 태어날 때만해도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주변 사람 모두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전부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복하고 즐거운 완전한 삶은 안타깝게도 그리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는다.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배신과 트라우마, 방치, 타인이 휘두르는 잦대와 평가, 거부를 경험하고 정서적인 혼란과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특히 상대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피해는 훨씬 크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결론 짓는, 부적절한 수치심이 확대되어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은 진짜 자아를 가리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는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른 사람들처럼 반응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수시로 멍해지거나 영똥한 순간에 이유 없이 긴장하는 반응도

바로 그러한 잘못된 자아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아끼고 보호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머릿속을 채운 부정확하고 자학적인 생각과 이것이 충돌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응성 자체가 악화되는 것이다. 저자가 '방어적인 자아'라고 일컫는 이 또 다른 자아가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몸과 마음, 정신을 차지하면 수동적이고, 무엇이든 피하려고 하는 삶이 일상이 된다. 또 같은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모든 판단에 영향을 주면서 자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곡해하는 것이다. 결국 해로운 관계로 인한 피해가 다시 더 큰 피해를 낳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다.

저자는 모든 질병이 그렇듯, 멍들고 망가진 자아를 다시 처음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려면 가장 근본적인 요소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부적절한 반응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더 깊이 파헤쳐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자신의 탓으로 잘못 해석한 부분을 바로잡고 다시 원래의 나, 가장 깊은 곳에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는 나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성찰, 다양한 틀을 활용한 실천 과제를 소개한다.

<목차>

마음속의 감정

머리말: 균열

1부. 틀

- 매일 실천할 것 / 명상 / 개인적인 책임 / 무조건적 사랑

2부. 방어적인 자아 구분하기

- 당신의 방어적인 자아 / 완벽주의자 / B군 학대 생존자 / 상호의존성 / C-PTSD
회피 / 경계 / 그 외 또 다른 방어적 자아

3부. 방어적인 자아 없애기

- 멍해지는 상태, 그 이상 / 외부를 내부로 / 분노 / 의도적인 자극
공포: 불안과 우울 / 상처의 중심부

4부. 상처의 중심부를 치유하는 법

- 그냥 그대로 / 수치심이라는 독 / 자기의심 / 자기 용서 / 용서 / 경계 / 삶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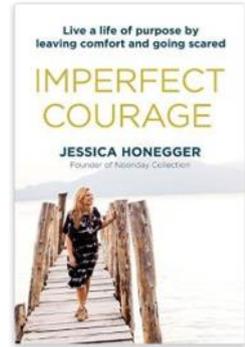
다시 완전하게

- '테 피티'의 마음 / 꿈 / 따끔한 상처 / 천사

<저자 소개>

잭슨 맥켄지(Jackson MacKenzie)는 온라인 커뮤니티 PsychopathFree.com을 공동 설립하여 매달 수백만 명의 학대 생존자들을 돕고 있다. 첫 번째 저서 『PSYCHOPATH FREE』는 미국에서만 11만 5,000부 이상 판매되고 중국, 이탈리아 등 8개 언어로 번역됐다.

제목 : IMPERFECT COURAGE
가제 : 어설픈 용기여도 괜찮아
저자 : Jessica Honegger
출판사: WaterBrook
발행일: 2018년 8월 2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공정무역과 소규모 창업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한 책 / 『Lean In』 『#걸보스-흥친 책을 팔던 소녀, 5년 만에 1,000억대 CEO가 되다』를 재미있게 읽었다면 주목해야 할 도서

*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좋은 목표와 마음만 뚜렷하다면 누구나 용기를 성공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한 경험으로 전하는 책

소규모 사업체와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미국의 주간지 「Inc.」는 매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업체 순위를 발표한다. 2015년에 이 매거진에 소개된 순위에는 특별한 업체가 45위에 올랐다. 불과 2년 전 집 거실에 상품을 모아놓고 친구들, 이웃들, 그 친구의 친구들을 최대한 초대해서 이벤트처럼 시작한 일이, 세계에서 가장 큰 액세서리 공정무역 업체로 성장한 것이다.

저자는 르완다에서 아이를 입양할 돈을 꼭 마련하고 말겠다는 결심 때문에 덜컥 벌인 행사가 하나의 사업이 되고, 단순히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을 넘어 상품을 만드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는 특별한 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과정을 이 책에서 들려준다. 용기는 거대한 야망과 남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좋은 목표와 마음만 뚜렷하다면 누구나 용기를 성공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자의 경험과 함께 생생하게 전한다.

해외 봉사단체에서 만난 사람과 일찍 결혼을 한 후, 저자는 남편과 함께 집을 수리하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파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사업을 이어가는 동안 경기 불안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집값 폭락으로 사업은 물론 재산을 다 날릴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혼 전은 물론 결혼 이후에도 가끔 찾아간 지구촌 어딘가의 가난한 마을과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르완다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한다. 마음은 당장 데려오고 싶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애태우던 그 때, 창업 컨설턴트로 일하던 친구를 통해 우간다에서 장신구를 만들어 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한다. 실력이 깜짝 놀랄 만큼 뛰어나다는 설명보다 저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 사람들에게는 가방이며 스카프, 귀걸이, 목걸이를 만들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생계를 유지하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었다. 판로를 확장하지 못해 애먹고 있다는 이들의 사연을 잊지 못했던 저자는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일을 벌여보기로 마음 먹는다.

어떻게든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며 우간다에서 보내온 두 박스 분량의 상품을 직접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물건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팔아보기로 한 것이다. 잘 된다면 액세서리를 만든 사람은 물론 저자 자신도 입양할 비용을 충당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는 마음에서 벌인 이 행사는 대성공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은 저자의 취지와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물건들에 녹아 있는 땀과 눈물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아보았다. 파티를 ‘빙자한’ 판매 행사는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 ‘눈데이 콜렉션’이라는 회사로 급속히 성장했다.

저자는 첫 행사에서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좋은 마음과 그것을 의미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일에서 느낄 수 있는 커다란 행복과 보람을 제대로 느꼈고, 나의 성공과 행복만이 아닌 타인의 행복도 생각하는 연민의 마음은 생각보다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총 세 부분으로 나뉜 자신의 경험과 감상을 통해, 저자는 그 용기를 믿고 대충 편하게 살려는 게으른 마음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독려한다.

<목차>

머리말. 한 번 해봐

1부. 첫 걸음

1장. 용기도 선택

2장. 일어서다

3장. 나의 이야기 속으로

4장. 나만의 가치

2부. 혼자보다는 함께

5장. 약점도 받아들이자

6장. 연민을 남겨둘 것

7장. ‘자매 효과’의 발견

8장. 협력에 매진하다

3부. 달라진 세상

9장. 범위를 넓혀라

10장. 자신의 능력에 에너지를 부여할 것

11장. 노력만 하는 건 이제 그만

12장.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저자 소개>

제시카 호네거(Jessica Honegger)는 전 세계 작업장에서 수작업으로 완성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공정무역 업체 ‘눈데이 콜렉션(Noonday Collection)’의 창립자로 현재 공동 CEO를 맡고 있다.

제목 : WOMEN'S WORK

가제 : 여성의 직업

저자 : Chris Crisman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20년 초

분량 : -

장르 : 예술/사진

*** 수십만 달러 규모로 출판 계약 체결**

*** 남자들만 하는 일로 생각하는 직업에 뛰어들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무너뜨린 여성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담아낸 사진과 이들이 직접 전하는 직업 이야기**

사회에서 여성들이 알게 모르게 받는 차별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하는 일’로 여겨져 온 현장에서 매일 일하는 여성들만큼 그 높은 벽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소방관,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자, 용접 기사, 도축업자, 양봉에 이르기까지 직업을 이야기할 때 대다수가 그 일을 하는 남성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야에서 묵묵히 자신의 꿈과 열정을 위해 일하는 여성들이 있다. 어린 딸아이를 둔 아버지로써 나중에 아이가 커서 하고 싶은 일을 단지 그와 같은 인식의 차별 때문에 주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작한 저자의 ‘여성의 직업’ 프로젝트는 2016년 짤막한 시리즈로 처음 발표된 후 엄청난 호응과 관심을 불러 모았다. 새하얀 앞치마를 매고 주변에 커다란 고기가 걸려 있는 도축 시설 한 가운데 칼을 들고 서 있는 여성, 먼지가 잔뜩 묻은 멜빵 바지 작업복을 입고 거대한 돼지가 모여 있는 지저분한 축사 안에서 슬며시 미소 짓는 여성, 금발 머리를 양 갈래로 땀아 내리고 배 위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여성 어부, 비가 쏟아지는 숲에서 큼직한 도끼를 어깨 위로 치켜 들고 있는 여성 등을 담아낸 저자의 사진과 사진 속 주인공들이 1인칭으로 직접 전한 생생한 이야기는 발표된 즉시 대형 언론에 보도되고 무수한 팬들도 생겼다. 이에 저자는 다양한 업무 현장에서 매일 땀 흘리는 여성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추가하여 이 책에서 하나로 묶을 예정이다.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여성의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한 다양한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이어지고 『Goodnight Stories for Rebel Girls』, 『Women in Science』, 『Rad American Wamen A-Z』와 같은 책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기 전부터 자신의 자리에서 이미 그 움직임을 조용히 이끌어온 용감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시선을 사로잡는 사진 만큼이나 흥미롭고 큰 의미가 있다. 저자는 이들 각각의 모습을 바로 그 현장에서 포착하고, 질문하고, 관찰하고 이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저자 소개>

크리스 크리스먼(Chris Crisman)은 사진작가로 화이자, 머크, 노바티스 등 대형 제약회사를 비롯해 코스트코, 쉘, 아메리칸 스탠다드 등과 함께 일했다. Luerzers에서 '세계 최고의 사진작가 200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됐으며 IPA 상, 아메리칸 포토그래피 상 등을 수상했다.

제목 : THE HEALING POWER OF ESSENTIAL OILS

가제 : 에센셜 오일의 치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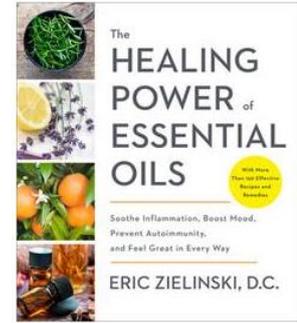
저자 : Eric Zielinski

출판사: Harmony

발행일: 2018년 3월 13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건강



- * “집안을 해독하고 약장을 재정비하고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DIY 레시피가 담긴 책”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Thyroid Connection』의 저자, 의학박사 에이미 마이어스
- * “옛 전통을 최신 과학과 결합하여 우울증, 만성 스트레스, 기분 장애 등 현대 사회의 골치아픈 건강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Adrenal Reset Diet』의 저자 앨런 크리스찬슨

인체가 꼭 필요로 하는 영양과 건강하게 사는 법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등장했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프까? 먼 옛날 아무 대책 없이 겪어야 했던 각종 전염병과 건강 문제는 병의 기전이 파악되어 대부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지만, 현대인의 몸은 여전히 건강하지 않다. 병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원인 모를 수많은 현대 사회의 질환을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하면서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저자는 이 같은 의학적 지식과 실제 건강 수준의 큰 격차가 ‘자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비타민 D가 모자라면 햇볕을 많이 쬐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레몬을 챙겨 먹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발효 식품을 좀 더 먹는 자연스럽지만 효과는 조금 늦게 나타날 수도 있는 방법 대신 우리는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약과 보충제를 집어 든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한가롭게 몸을 챙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자는 인간이 만든 환경 속에서 발생한 건강 문제를 인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문제가 악화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연을 그대로 농축한 에센셜 오일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나무와 각종 식물에 인체를 치유해줄 신비한 성분이 담겨 있고, 그 유효 성분을 각 식물에 알맞은 방식으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적절히 활용하면 현대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자는 먼저 에센셜 오일이 불안과 우울증, 자꾸만 재발하는 각종 염증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연적인 방법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진 효과와 성분의 특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어 처음 에센셜 오일을 접한 초보자를 위해 필수 오일 7종을 소개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아로마테라피 기법과 도구도 함께 제시한다. 한 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적절히 조합한 블렌드 오일의 특성과 활용법도 소개된다. 호르몬 균형을 바로 잡고 염증 완화, 소화기능 개선, 면역기능 강화 등에 효과적인 블렌딩 레시피와 함께 책

3부에서는 생리 전 증후군과 임신, 칸디다증, 폐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오일이 제시된다. 책 전반에 걸쳐 저자가 제공하는 오일 블렌딩 레시피는 150여 가지에 달하며, 거의 모든 건강 문제를 포괄한다.

기존에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던 사람부터 처음 이용하는 사람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활용 팁이 가득 담겨 있다.

<목차>

머리말

1부. 에센셜 오일의 혁명

1. 아로마테라피의 기본 원리
2. 기본 도구와 기법
3. 약장에 채워 넣어야 할 것들
4. 삶을 변화를 위한 에센셜 오일 활용법 간단 요약
5. 시작하자: 에센셜 오일 일일 활용법
6. 약장을 늘려보자

2부. 거의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는 닥터 Z의 추천 오일

7. 기본 레시피
8. 치유
9. 개인 위생관리 제품 (이하 생략, 총 12장까지)

3부. 여성의 건강 (13-17장)

<저자 소개>

에릭 지엘린스키(Eric Zielinski)는 공중보건과 아로마테라피를 공부하고 에센셜 오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는 일에 주력해 왔다. 웹 사이트 DrEricZ.com에는 매년 600만 명이 방문할 만큼 큰 관심을 얻고 있다.